

카길퓨리나

카길 사료, 육품정 비육우 우수농장의 날 행사 열어

지난 9월 8일 카길사료(대표 : 이보균) 13지구(영업이사 : 우경목)는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농협 회의실에서 “카길 비육우 우수농장의 날 행사”를 비육농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2007년 카길사료와 육품정 브랜드 사업 협약식을 갖고 발전하고 있는 청원육우영농조합법인(대표 : 강태운)의 농가 및 성적을 소개하는 자리였으며 육품정 브랜드의 의미와 브랜드 개발 및 진행상황을 보면서 육품정 농가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장성수 축우전략부장은 최근 국내산 쇠고기의 점유율이 50%이상 올라가면서 향후 시장전망은 밝다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육우고기 홍보는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육우자조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서 우신안 지역부장은 육품정 브랜드의 의미 및 브랜드 농가의 성적을 소개하였다. 육품정 브랜드는 국내 최초 생산자 육우브랜드로, 육우브랜드 최초로 가락동에 정식상장하고, 국내 최초 육품정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중인 선도 브랜드로 성장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전 농가 HACCP 인증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우수 목장으로 소개된 전체 16개 농가들의 성적 현황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서울농협 가락동에 무려 2,318두를 상장하였으며, 육품정 브랜드 농가의 전체 평균성적은 전국평균 2등급 이상 54%와 평균 도체중 406kg에 대비 2등급 이상 70%, 평균 도체중 424kg을 달성하여 월등히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이 평균성적은 출하일령 21.2개월이며 자금회전, 사료효율 등을 계산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출하일령과 성적임을 강조하였다. 육품정 농가의 수익을 비교하여보면 국내평균 농가 대비 출하 두당 244,250원의 추가수익을 올렸으며 상시 사육두수 300두 규모에서 연간 4천 2백만원의 추가수익을 올려 카길 비육사료와 서비스의 차별성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대한사료공업(주)

“농업법인회사 대한F·S(주) 창립”

대한사료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 이종길)는 지난 8월 1일 신규사업 진출의 일환으로 축산관련 '팜솔루션(Farm Solution)'을 담당하는 "농업법인회사 대한에프에스 주식회사"를(이하 대한F.S(주)) 설립

하고 대한F.S(주) 산하 덕산농장에서 8월 1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농업법인회사 대한F.S(주)는 충남 예산군 덕산에 위치한 덕산농장에서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생산된 농·축산물을 유통·가공·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환경 친화적인 안전 축산물을 생산, 판매하고 생명과학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능성 축산물과 건강식품을 연구, 개발,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길 대표이사는 “기존의 사업영역을 사료에 국한 시키지 않고 축산관련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 분야에 대해 Solution을 할 수 있는 기업으



로 만들겠다.”면서 “가축 계열화, 브랜드, 유통, 축산건설팅뿐만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체험농장 및 축산관광 기능까지 가진 기업으로써, 축산물과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회사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CJ Feed

도너스캠프를 통해 소외계층에 사회공헌 활동 전개

지난 8월 29일 CJ ‘도너스캠프’ 운영 4주년으로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 조각공원에서 문화 축제를 가졌다. CJ도너스캠프는 소외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나눔터’로 ‘쉽고 즐거운 나눔’을 모토로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그룹홈 등에서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면 후원자들이 그중에서 원하는 제안서를 선택해 기부한다. 현장 교사들이 제안하는 교육 프로그램 범위는 학습지도, 예술, 현장체험, 체육, 심성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현장 교사뿐만 아니라 도너스캠프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좋은 아이디어에도 도너스캠프는 늘 눈과 귀를 열어 두고 있다.

후원자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지역, 기간에 따라 돕고 싶은 교육제안서를 쉽게 찾고 기부할 수 있다. 또, 기부와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후 후원에 대한 감사노트, 학습효과에 대한 메시지 등을 이메일 통해 전달 받는다. 온라인을 통한 투명한 사랑 나눔



이 CJ도너스캠프의 목표이기 하다.

특히 CJ나눔재단은 후원자들의 사랑을 두배로 키워드리기 위해 매칭 펀드(Matching Fund)를 운영하고 있다. 한 후원자가 공부방 프로그램에 1,000원을 후원하면 CJ나눔재단이 1,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CJ Feed는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한 투명한 나눔 활동과 CJ나눔재단과 함께 하는 ‘사랑 두배 키우기’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더 많은 후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